

도입
기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이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시간 동안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Nor any ill forebodes,
But at the cross of Cal'ry sings, "Praise God for lifted loads!"
 2. The passing days bring many cares. "Fear not," I hear Him say;
And when my fears are turned to prayers, The burdens slip away.
 3. He tells me of my Father's love, And never slumbring eye:
My everlasting King above Will all my needs supply.
 4. When to the throne of grace I flee, I find the promise true:
The mighty arms upholding me Will bear my burdens too.
-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Praising the Lord, praising the Lord;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For Jesus has lifted my load.

본문 요한복음 15:5-7

-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John 15:5-7

5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Whoever abides in me and I in him, he it is that bears much fruit, for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6 If anyone does not abide in me, he is thrown away like a branch and withers; and the branches are gathered, thrown into the fire, and burned. 7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비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매우 친밀한 그림을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우리를 그 가지로 설명하시며 영적인 생명의 본질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함"에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큰 위협은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풍성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과 지혜, 자립심에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조용히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대는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바로 그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은 곧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생명을 공급받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말씀에 마음을 맞추며,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중심의 삶은 우리를 자기 의존에서 신뢰로, 분주함에서 헌신으로 옮겨 가게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모든 가지를 사랑으로 가지치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치기는 때로 불편하지만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영적 생명을 약화시키는 불필요한 습관과 집착, 그리고 여러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십니다. 잘려 나가는 것은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더 큰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릴수록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갑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섬기고, 용서하고, 격려하며,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을 더욱 의지하도록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가지치기를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흐르도록 할 때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애쓰는 삶이라기보다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편지

In John 15, Jesus offers one of the most intimate pictures of the Christian life. He describes Himself as the true vine and His followers as the branches, revealing that the essence of spiritual life is not found in striving, but in abiding. The greatest threat to the Christian life is not persecution, but independence from God. Just as a branch cannot survive apart from the vine, believers cannot flourish apart from Christ. When we begin to rely on our own strength, wisdom, or self-sufficiency, we quietly disconnect from the very source of life. The invitation of Jesus is therefore simple yet profound: remain in Him. To connect with Jesus is to embrace a Christ-centered life. This connection is not occasional; it is meant to shape the rhythm of our daily existence. Just as a branch rests in the vine and receives life, we are called to depend on Jesus continually — seeking His presence, aligning our hearts with His word, and allowing His truth to guide our steps. A Jesus-centered life shifts us from self-reliance to trust and from distraction to devotion. When we remain in Him, His life flows naturally into ours. Yet Jesus also tells us that the Father, as the gardener, lovingly prunes every branch so that it may become more fruitful. Pruning is rarely comfortable, but it is always purposeful. God removes the unnecessary habits, attachments, and distractions that compete for our attention and weaken our spiritual vitality. What is cut away is not meant to harm us, but to deepen our relationship with Him and create space for greater spiritual growth. The natural result of remaining connected and allowing God to prune us is that we begin to bear fruit. Fruit is not something we manufacture; it is the visible evidence of Christ's life within us. As His life takes root in our hearts, we increasingly reflect His character. His love is displayed in how we serve, forgive, encourage, and care for others. In this way, our lives begin to resemble those of true followers of Jesus. Jesus reminds us,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This is not meant to discourage us, but to redirect us toward dependence on Him. When we stay connected, trust the Father's pruning, and allow Christ's life to flow through us, fruit becomes inevitable. The Christian life is less about striving and more about abiding — staying close to Jesus so that His love may be seen through us.

나
에게
주
어
주
신
문

1.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협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내 힘과 지혜로만 해결하려다 지쳤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It was mentioned that the greatest threat to a Christian is independence from God. When was a recent moment when you felt exhausted from trying to handle everything solely with your own strength and wisdom?
2. 하나님은 더 큰 성장을 위해 우리의 불필요한 습관이나 집착을 '가지치기' 하십니다. 요즘 내 삶에서 주님과 관계를 방해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God prunes our unnecessary habits or obsessions for greater growth. What part of your life do you feel needs pruning because it hinders y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3.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 성품이나 말, 행동에서 나타나길 바라는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As you abide in Jesus, what specific character of His do you hope to see manifest in your personality, speech, or actions?

마
침
기
도

고마우신 주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가장 큰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에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racious Lord, we believe that Your words,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are our greatest comfort rather than a cause for despair. Help us never forget that we are safest and most fruitful when we remain by Your side. Throughout this coming week, let us trust in Your good and perfect plan. Guide us so that the fragrance of Jesus may be revealed to the world through our daily lives. With grateful hearts,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주
기
도
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족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애쓰는 삶'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선시하며, 매순간 예수 중심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소서.
May our family prioritize 'abiding in the Lord' over 'striving in busyness,' and build a Jesus-centered home in every moment.
2. 삶의 고난이나 불편한 변화가 찾아올 때, 그것을 나를 해치려는 시련이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지치기로 신뢰하게 하소서.
When hardships or uncomfortable changes come, help us trust them not as trials meant to harm us, but as God's loving pruning for more abundant fruit.
3.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정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을 섬기고 용서하며 격려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May the life of Jesus flowing within us not stay only in our home but manifest as concrete fruits of love—serving, forgiving, and encouraging our neighbors.